

무한을 향해 드리운 그림자들

서길현/판테옹 소르본느 조형예술학 박사

나무들이나 식물들의 덩굴이며 가지들, 그곳에서 움터 피어나는 꽃봉오리나 잎사귀들은 모두가 하나 하나의 촉수와 같다. 촉수는 일종의 살아있는 감각기관이다. 그것은 부단히 그 말단의 더듬이로 공간을 타진하여 최적의 곳으로 뻗어나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촉수를 뻗어 허공에 삶의 터전을 확보하려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은 이들로 하여금 놀랍도록 적절한 비율로 공간을 나누어 움켜쥐게 한다. 그것은 겉으로는 쉬이 드러나지 않는 그들만의 치열하고도 숙연한 생존작용의 결과이다.

화가가 화폭 위에 선을 그릴 때의 행위도 이와 유사하다. 손의 연장인 붓은 화가에게 더듬이이자 촉수가 된다. 그는 부단히 붓의 촉수를 뻗어 자신만의 호흡을 따라 최적의 공간을 공략해 나간다. 화가 허미자는 화면 위에 대개 어두운 색으로 죽죽 벌은 나뭇가지나 때로는 덩굴식물처럼 보이는 실루엣의 선들을 이어나간다. 일견 수묵화나 사군자의 필법을 연상케 하는 이 선들은 화면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황금률을 이루는 나뭇가지나 덩굴줄기들을 자아낸다. 그러한 나뭇가지나 식물줄기의 실루엣들은 제한된 사각의 화면 밖으로 뻗어나가 보다 더 큰 줄기와 구조로 된 흐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흐른다. 움직임 없이 놓여있는 돌이나 수천 년을 제자리에 요지부동으로 누워있는 바위조차도 지나간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용융되어 흐르던 용암이 잠시 숨을 고르는 긴 휴지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날 문득 기지개를 켜며 시간의 쉽표를 깨뜨리고 구르거나 자신의 형용을 바꾸어 변화된 미지의 환경 속으로 용해되어 또다시 흘러갈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며 잎새를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점진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식물들 앞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사유가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무나 식물들이 자라고 뻗어나가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흐름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고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다. 무한 증식하듯 끝없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공간만을 아주 겸허하고 경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뭇가지의 끝이나 잎새들은 그 억제되고 제한된 뻗어나감으로의 욕망을 허공을 향한 침묵에서 나오는 긴장과 떨림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의지를 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은 늘 이 우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공간과 세계를 초월하려는 꿈을 꾸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주어진 영역 밖으로 한없이 투사하여 확산시키고자 하는 무한을 향한 자유에의 의지이다. 이 의지는 곧 화가에게 손의 연장인

붓의 의지로서 나타난다. 화가의 의지인 촉수로서의 붓은 이 세계에서 물리적 제약을 뚫고 화면 밖으로까지 무한히 나아가려 한다. 이렇듯 허미자의 그림에 있어서 어두운 실루엣들이 부단히 화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인은 그녀의 그림들을 단지 사각의 창틀 안에 잘린 채로 박제되어 갇혀 있는 풍경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커다란 전체의 일부분처럼 화면에 포착된 줄기의 그림자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날아가다가 일순간에 그 움직임을 들켜버린 미확인 생물체의 잔영 또는 궤적과 같다. 것처럼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현재진행형의 생생한 현현이다.

나뭇잎들은 작은 바람에도 살랑살랑 흔들거린다.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그것들은 때로 미세한 떨림과 같은 감각을 일깨운다. 부유하듯 공허를 떠받치고 있는 흔들리는 존재의 불확실성 때문일까. 허미자가 그려내는 어딘가 약간씩 떨리는 듯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나무나 식물들의 윤곽 또한 이렇듯 순간적이고 존재론적인 진동의 궤적 속에 있다. 그것은 언제나 미지의 곳을 향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에 느끼는 불안과 기대, 감동과 흥분의 떨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디니Henri Maldiney에 의하면 마음을 끄는 매혹적인 이미지는 항상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최초의 순간 속에 있다. 전체적이며 유일한 이미지는 그렇게 '영원한 나타남의 동시성'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전체 속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 자체이고 그 세계는 꿈을 꾸는 세계이다. 이와 같이 늘 떠나려는 순간을 고스란히 붙잡아 놓으려는 듯한 화가의 붓질은 허공을 향해 기어가는 커다란 전체의 일부인 어두운 실루엣의 이미지를 살아 움직이는 어떤 꿈으로 만든다. 그것은 화가 허미자가 주어진 사각의 창틀 안에서 전체의 꿈을 꾸고 즐기게 그 전모를 채취하려 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지어내는 끈질긴 꿈의 흔적이다.